

# 세상 '신명' 나주로 다 모이네~

21~23일 대한민국 마당극축제  
15개 도시 23개 작품 무대에  
광주 '놀이패 신명' 5·18 다룬  
'언젠가 봄날에' 선보여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마당극 광대'들이 나주에서 집결합니다. 풍자와 해학으로 빛어낸 마당극 대잔치에 놀러 오셔서 마음껏 어깨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족극협회(이사장 손재오)가 주최하는 '제33회 대한민국 마당극축제'가 오는 21~23일 나주혁신도시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1988년부터 35년간 이어온 '전국민족극한마당'의 명칭을 바꿔 계승했다.

공연은 '통과의례(通過儀禮)'라는 익숙하고도 낯선 주제로 진행된다.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획득할 때 행하게 되는 의식을 통과의례라 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 탄생부터 소멸까지 인간사 전체를 마당극에 녹여낼 예정이다. 무대에는 광주와 서울, 제주, 통영, 대전 등 전국 15개 도시의 극단이 출품한 23개 작품이 오른다.

그 중 광주지역 '놀이패 신명'은 '언젠가 봄날에'를 선보인다. 5·18 당시의 행방자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대동정신이라는 주제의식을 '마당극'의 형식에 담아낸다. 5월 광주의 민중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언젠가 도래하게 될 '봄날'의 모습을 신명 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류문화사를 관통하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있다. 조선 중기의 실천적 유학자로 남명학파를 이룬 조식의 삶을 극단 '큰들이 그려낼 예정. 작품 '남명'은 성리학과 유학에 매진했던 학자 조식의 삶을 가감없이 전한다. 또 '예술평화 두레'의 마당극패들은 '착한사람 김삼봉'을 '김삼봉'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사를 매개로 해학적 주제의식을 풀어낸다. 이외에도 잘 알려진 김우정의 '동백꽃'을 원작으로 한 극단 '아리랑'의 '동백꽃', 풍자적 웃음을 통해 골계미를 지어내는 극단 '좋다'의 '귀신은 뭐 하나' 등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통과의례적 모티브를 전 지구적 관점으로 확장한 작품도 있다. 마당극패 '우금치'의 '라스트 생존게임'은 병하기 녹고 자연이 파괴되며 그로 인해 기이한 생물체들에서 비롯되는 원인 모를 감염병을 이야기한다. 작품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관통해 온 인류의 미래 생존방식과 엔데믹 이후의 삶을 겹쳐보게 한다.

아울러 진도 소포리 주민들의 '상장례 놀이'를 비롯해 아동극, 점괘놀이, 탈놀이, 풍물과 마임, 프리마켓 및 세미나까지 볼거리도 풍성하다. 공연 외에 나주예총이 참여하는 콘서트 무대도 마련돼 있다.

손재오 이사장은 "광주·전남에서 전국 규모의 마당극 축제를 여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공연은 전국의 우수한 마당극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역사, 환경, 교육, 민속 등 작품에 녹아있는 소재 등이 다양해 다채로운 마당극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놀이패 죽자사자의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한국민족극협회 제공>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놀이패 신명 제공>

## '결핍'은 창작을 위한 '풍요'

목포 출신 박해달 시인, 시집 '꽃인 줄 모르고 핀다' 펴내

"피었다 진 꽃의 흔적이 쓰다 만 문장 같아서 오래도록 들여다보곤 합니다. 언어를 머금은 꽃은 피고 진 적이 없어 감히, 색(色)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마다 시를 쓰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자아실현을 위해 작품을 쓰고 어떤 이는 내면에 쌓인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쓴다. 또 어떤 이는 그저 여기 살아, 시를 창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머지 창작에 몰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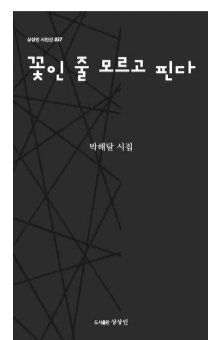
그러나 어떤 이에게 창작은 결핍의 서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결핍의 해소를 위한 나름의 통과의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목포 출신 박해달 시인에게 시는 결핍의 눈물을 위로하기 위한 매개체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결핍은 창작을 위한 무궁무진한 '풍요'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박 시인이 최근 펴낸 '꽃인 줄 모르고 핀다'(상상인)는 결핍과 풍요의 상반된 감성이 집약된 시집이다.

모두 50여 편의 시는 짧지만 울림을 주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시마다 잠재된 이야기는 독자에게 묘한 끌림을 선사한다.

"난 늘 초목이었어/ 초목이어야만 하는 패를 쥐



었으니까// 가을로 몰드는 너를 보며/ 갈색 꿈을 꾸기도 했지// 너는 무감하게 말하지/ 갈색은 겨울 나기를 위한 순서일 뿐이라고/ 그러므로 좀 더 진한 초록을 품어야 한다고..."

위 시 '알지 못하도록 초록은 화자의 아픔의 서사가 담긴 작품이다. "뇌적수막염을 끌어안고"에서 보듯 시적 화자에게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초록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픔"을 견디며 "새로 돈을 시푸른 초록을 위한 기꺼운 기쁨"을 하고 있다.

오민석 문학평론가는 "박해달의 시들은 한쪽에는 결핍의 눈물을 다른 한쪽엔 풍요의 신화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저울 같다"며 "결핍과 풍요는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깊게 한다. 풍요는 결핍 때문에 더욱 풍요로워지며 결핍은 풍요 때문에 더욱 가난하다"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동시로 등단했으며 순천대 대학원 문장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클래식 지휘자 강의 무료로 배우세요

광주시립교향악단, 다음달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클래식 지휘자의 강의를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무료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은 다음 달 10일(오후 5시)까지 상임지휘자 '홍석원 마스터 클래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멘토로 나서는 홍석원<사진> 상임지휘자는 서울대에서 작곡과 지휘 전공,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지휘와 디플롬,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독일음악협회에서 '미래의 마에스트로'에 선발되는 한편, 평창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올라 오페라 프로덕션을 해석해 왔다.

클래스에 선정된 인원은 9월 1일 오후 2시, 4일 오전 10시에 광주시향 연습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각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결정한 무대



로 당일 지정곡은 '베토벤 교향악 4번 in B-flat Major Op.60'.

지휘자는 연령이나 지역 제한은 없으며 지휘영상 촬영본(자유곡)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뒤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단 2년 이내의 전

신이 촬영된 지휘 영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의 마스터클래스 참관 신청도 교향악단 홈페이지 신청 링크를 통해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용 무료, 구급품 접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향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

## 광주 문화장터 25·27일 '누리랑께'

신용동·우산동서 공예품 등 판매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장터 '누리랑께'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문화 향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장터 '누리랑께'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장터는 가맹점이 직접 거주 지역을 찾아가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25일(북

구 신용동 생활문화센터 3층), 27일(북구 우산동 생활문화센터 5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번 가맹점 문화장터에서는 공예품, 운동용품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결제자 중 결제금액에 따라 푸짐한 사은품(선착순)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